

연중 제 2주일

기도서 329 면(A해)
 제1독서 : 이 사 49, 3. 5-6
 제2독서 : 1 고린 1, 1-3
 복 음 : 요 한 1. 29-34

숲 정 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관 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성 태 수 신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6세기 경에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실 신비스런 야훼의 종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 야훼의 종은 네개의 종의 노래에 잘 묘사되어 있으며 오늘 제1독서는 둘째 노래 중의 첫 귀절입니다. 야훼의 종이 과연 누구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그의 사명은 야훼만이 하느님이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한 야훼의 종은 온 세상에 구원의 말씀을 전해줄 분이십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의 개인이나 국가의 이익에만 국한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요르단 강가에서 예수를 처음 보았을 때 신비스런 야훼의 종이 바로 예수시라는 것을 인식하여 "보라, 이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고 말합니다. 아람어에서 '어린양'이라고 하는 말은 '증'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증언을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영성체 전에 반복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교의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분의 거룩함 앞에 온전히 티끌만도 못한 우리를 자비로운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흰 눈이 누리를 덮어 더러운 것을 가리듯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밀바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일은 처음 우리에게 세례성사를 통하여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한 새 생명으로 다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 본성을 넘어 하느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제2독서에서 바울로는 고린토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어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의 증언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크나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며, 우리가 받은 하느님의 생명을 남에게 전해주는 일입니다. 그것은 거룩한 삶으로써 타인에게 빛이 되는 일입니다. 비록 성인의 큰 빛은 되지 못할 망정, 주변의 어두움을 비추는 작은 촛불이라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양"이 함께 계시기에 용기를 갖고 증거하는 삶을 다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홍보국장 신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지난 70년 만에 한국의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일차에서는 상당히 가까이 지났다. 그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이었다. 그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민주주의와 인권회복을 향해서 함께 발을 맞춘 것이다. 비록 그 기간이 길지 못했고 그 움직임이 교회 일부의 것이기는 했지만, 그때의 흔적들은 오늘도 그들을 가까이 지내게 한다. 여기에도 일치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이 있음이 분명하다.

사실 옳은 일을 위해서는 종파도, 지역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필요하고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힘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리 쉽게 하나가 되지 못한다. 그러나 먹을 것이 있다면 누가 무어라고 하지 않아도 쉬파리 달다붙듯이 몰려온다. 거기에 대해서는 은 30년의 역사적 교훈이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경고를 던지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지혜를 모아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다. 가장 중요한 정치문제나 경제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숭한 사회문제들이 있다. 최근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만 해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노름꾼의 뱃장을 훈련시키는 이 풍토 하나만 보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것 같다. 이러한 곳에 일치된 하나의 힘이 필요하다.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해마다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를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으로 삼고 있다. 올해의 주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가 되도록 부름받았다"이다. 가톨릭 200년, 개신교 100년의 역사적 첫걸음에서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절실히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겠다. 하느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가 되라는 부르심의 소리다.

숲 정 이 산책

현정권의 인권 탄압을 규탄한다

우리도 사제단과 함께 행동하겠다!

1984년도 사목 세부지침

1. 순교정신 양양

가. 해신과 화해를 위한 기도 운동

1) 한국 교회는 주교단의 요청으로 구원의 성년이 84년 그리스도왕 축일까지 연장되었기에 성년의 특별한 사를 얻기 위한 지침도 그 시기까지 연장한다.

2) 각 본당과 수도회는 한국 교회 200주년을 맞는 1984년도가 진정 구원의 해가 될 수 있도록 1983년 12월 31일~1월 7일 사이에 성시간을 거행한다.

3) 사순절 기간 중에는 각 본당과 수도회에서 참회 예절을 갖는다.

4) 교황님의 한국 방문에 앞서 교황님의 안전과 우리 나라에 진리와 정의와 평화가 정착되도록 9일 기도를 바친다.

5) 교구 봉헌 기도문을 전례나 가정에서 바치면서 교구 후보의 은우를 구한다.

나. 순교자 성지 및 성년 지정 성당 순례 권장

다. 순교자 현양 대회

1) 교황 방문시 광주 및 서울 신앙대회 참가

2) 9월 30일(주일): 한국 순교자 대축일 및 교구 후보행사를 각 본당에서 거행한다.

라. 한국 교회사 및 순교자들의 생애를 연구하고 묵상하도록 한다.

마. 순교자 현양 사업의 적극 추진

1) 피정의 집 건립

2) 성지개발(전주 치명자산, 여산 순교지, 천호 성지 등)

3) 기념 성당 건립

2. 사회복지 사목 강화

가. 사회복지 사목 강화를 위한 조직의 정착

1) 교구 사회복지 사목부에 인성회의 업무를 통합하고 운영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한다.

2) 각 본당은 사도회 봉사부가 제반 봉사업무를 총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도회 조직에서 분리된 별도의 인성회 조직은 피함으로써 활동의 일원화를 기한다.

3) 교구 내 제단체도 봉사부를 신설하고(없었던 단체에 한함)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4) 각 본당은 예산 총액의 3~5%를 사회복지 활동비로 책정하며, 제단체도 이에 준한 예산을 편성하고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나. 신자들에게 애덕 실천 사명을 고취시키는 교육, 홍보활동 전개

1) 사순절 교육 자료 제공

2) 봉사자 교육 년 3회

3) 정착촌 순회교육 년 4회

4) 사회복지 사목 세미나 개최 년 1회

5) 기타 교육지원

다. 각종 자선단체 육성 및 지원

1) 빈센시오 아 빠올로회 육성

2) 구라회, 릴리회, 꽃동네, 밀알회, 다미안회 등

각종 후원단체 육성

3) 교도소 사목 지원

4) 기타 각 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5) 교구 사회복지 사목 후원회 결성

라. 각종 봉사활동 전개

1) 장애자 모임 후원

2) 전주 "자립원" 지원

3) 기타 불우이웃돕기 활동 전개

4) 국내 자선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도모하고 불우이

웃을 돕는 활동 전개

5) 불우 근로자 후원

3. 농촌교회 활성화

※ 농촌 사목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촌교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 교육지도 업무를 권장토록 한다.

1. 농촌교회 지도자 양성—금년도는 후보자 50명을 현장교회에서 선정하여 집중 교육한다.

2. 시범 공동체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농촌교회 전체에 확장한다.

3. 농촌교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각종 자료를 제공한다.

4. 순회 지도반 편성하여 농촌교회를 지원한다.

1) 농민 사목부 지도반이 순회 교육한다.

2) 농민회 현지교육—년 40회

3) 교구 평협 순회교육—년 20회

5. 농촌 사목자 세미나—년 2회

6. 도시와 농촌간의 결속을 위한 활동 전개

7. 농촌교회(특히, 공소)의 각종 전례를 돕는 자료 제공 주일 말씀의 전례, 성가책, 기도서 보급

4. 해외 선교사 파견

가. 성직자가 극도로 부족한 해외 교회에 성직자를 파견한다.

1) 희망하는 사제 중에서 선정한다.

2) 언어를 익히는 것을 감안할 때 45세 미만 사제로 한다.

3) 해외사목을 6년(언어수업 1년 포함) 정도로 한다.

나. 선교, 의료, 봉사활동을 위해 평신도, 수도자 중에서도 희망자가 있을 경우 선정하여 파견한다.

다. 해외 사목후원회를 결성하여 영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전 일 관 광

☎ 6-6666~8

학생 수시 모집(주·야)
철저한 개인지도
V.T.R로 산 교육화

현대 미용학원

전주시서노송동(중앙성당앞)

원장: 김 데레사(금순)

☎ ① 9206 · ③ 5289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로가디스
소사이머티



위 크 엔 드
간 이 북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40% 바겐세일
83. 1. 6~1. 22까지



첼 린 저
주 니 어 북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② 4 4 5 1
주인 유 율리안나

□ 1월 중 교육

- ※ 남성 제19차 푸르실로 교육: 17일~20일,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1인당 3만원
- ※ 중고등학생 연합회 정기총회 겸 성서세미나: 22일 오후 2시~23일, 장소-센터 대상-교구내 중고등학생, 참가비-4천원, 준비물-성서, 제성가집, 묵주, 필기구
- ※ 그리스도 공동체 목상회(M. B. W): 23일 오후 3시30분~26일,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2만원, 접수 및 문의-교육국
- ※ 레지오 마리에 간부 연수회: 29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레지오 마리에 간부
- ※ 중고생 지도자 연수회: 28일~30일, 장소-가톨릭 센터, 참가비-7천원

□ 은인을 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룩한 결과(예비고사 성적 225점)지만 등록금이 없어 애를 태우는 학생이 있다. 대구 시민고등학교 1년을 중퇴한 장 익성군은 불우한 가정환경 탓으로 현재 전주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지만 원내에서는 모범생으로 손꼽히고 있으며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일념으로 이룩한 예비고사 성적으로 대구 영남대학 무역학과에 원서를 내놓았으나 막막한 실정이다. 장군은 1월 말로 퇴원하게 되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장사를 하는 홀어머니 뿐이다.

※ 도움을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교구청 홍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노동자는 이렇게 탄압받고 있다.

사례① (이리 소재 한국전직 회사에서)

1. 황 수경(테레사)의 경우

1983. 4. 29: XX×대리는 황 수경을 불러 "야학에 다니고 있지 않느냐? 야학은 빨갱이 단체와 같은 것이다"고 말했다. (주: 이 야학은 노동자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이리 창인동 성당에 설치되어 있음)

익일 준비반장은 황 수경에게 "성당은 정부와 모든 기관에서도 달갑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 그런 곳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중용한 뒤 황 수경을 감시하기 시작했음. 이후도 성당에 나가지 말 것과 가톨릭 노동청년회 회원 소 울리안나와의 접촉을 금하면서 동료들에게는 천주교 및 황 수경을 비방하여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음.

1983. 9. 26: 회사에 추석 보너스 문제가 생기자 이 책임을 황 수경에게 돌려 써우고 남자도 하기 힘든 심한 육체노동을 하는 가공부로 부서이동을 시킴. 황 수경은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 XX×부장을 찾아가 원부서로 보내주기를 사정해 보았으나 이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제발 회사에서 나가 달라고만 하였음.

1983. 11. 10: 황 수경은 심한 육체노동으로 인해 팔, 허리,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 온통 파스를 부치고 피로와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2년 동안 근무하던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회사를 나오게 되었음.

2. 김 광순(유스미나)의 경우

김 광순은 1983. 5. 7. 회사 간부에게 불려가 "야학은 사회를 좀먹는 좀벌레이며 빨갱이 단체이니 다니지 말라. 그래도 다닌다면 좋지 않을 것이다"고 협박을 당했다. 그 후 교적을 옮기려 성당에 찾아간 일이 있었는데 미행을 당하고 회사에서 알게 되어 해고시킨다는 얘기를 들음. 그리고 친구에게는 김 광순과 어울리지 말도록 했고 1983. 8. 26. 에는 부서이동을 시키면서 성당에 나가지도 말고 J.O.C. 회원인 소 경숙도 만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음.

요심이(545) 김병오



☆직원모집: 0명

☆대리점 모집: 시, 읍 단위

베 네 디 트

(W. B. L 1-2207)

전주사무소: 전주시 전동2가

76(성모병원 3층 305호)

전화 (72) 3925

김(미카엘)

카텐·카페트·골드룸·
모노룸·브라이트·홀딩
도어

황 실 카 텐

☎ 3-9465

박 남 식(요안)

전시장: 이리 북부시장

사거리

한국제과

선물용 케익, 빵 다과류
일 절

☎ ⑥589 ②176

유영문(가에파노)

김민주(가타리나)

전주시 경원동 1가 104-24

(자동차 보험회사 앞)

□마춤·대여□

신부의 집

*웨딩드레스·연주복·

비디오촬영·패백의상·

신부부케·야외촬영

판통도로 서울신탁은행 앞

☎ ⑥6951

정인기(논지노)

송옥의상실

*결혼예복 전문

*여성부피고 전문

전주시 중앙동 3가 102

(삼화약국 옆)

전화 ⑥6219

최춘자(로사리아)

☆마이크 컴퓨터시설 전문

VTR, 칼라TV, 녹음기

백운전자

☎ 3-0231

우신호텔-시민약국 중간

백니노·이테레사



1. 꼬미씨음 율례회: 15일 오후 2시, 장소-전동성당, 참가범위-우리아 간부 및 직속Pr. 간부 전원
 2. 센터 영제자(12월 23일) 만남의 날: 16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 센터 ※사진 증정
 3. 군중후원회 정기총회: 21일 오후 3시, 장소-가톨릭 센터 강당, 회순-미사·총회·파티
 4. 교리교사 연합회 모임: 21일 오후 3시, 장소-센터 3층 회의실, 대상-각 지구 회장단 및 본당회장
 5. 성심여고 신자 동문 정기총회: 23일 오전 10시, 장소-성심여고 종교강실
 6. 성령쇄신 봉사자 모임: 26일 오후 7시30분, 장소-센터 3층
- 전화번호 변경: 원평-사제관 219번, 수녀원·실험 7번

(중양)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협**

전화 ①711~3

1. 교리교사 총회: 14일 오후 4시
 2. 연총진목회: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3. 병자방문: 24일 사무실에 신청
 4. 푸르실리스타 탄생: 축하합니다
 5. 주의 봉헌축일 2월2일: 조봉현 예식이 있었습니다
 6. 구정미사: 아침 6시, 저녁 7시
 7. 애령회 총회: 공식미사 후, 사도회임원 참석 요
 8. 복음 사상연구: 매주(금) 오후 7시30분, 중앙성당, 강사-문정현 신부, 성사에 관심있으신분 참여 바람
 9. 벽돌 봉헌: 5.105장 봉헌
 10. 성전 신축헌금 신입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배영(9만원), 정진일(20만원), 정화자(3만원), 유용기·박봉규·박영·이의준(각 2만원), 양승남·김옥자·이공덕·박완기·송옥순(각 5만원), 김명월·임소영(각 10만원)
- 지난주 봉헌금: 964,231원 교무금: 953,700원
 금암동: 83,070원 감사헌금: 김요셉(5만원), 익명(7천원), 익명(1만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수·사 ②7032

주임 신부 **김나훈**
 보좌 신부 **이춘재**
 사도 회장 **이**

1. 환자봉성체: 17일 오후 3시부터 환자를 모신 가정은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2. 중·고생 동계피정: 56명 무사히 마쳤습니다
 3. 남성 제19차 푸르실로 개강: 17일~20일까지 많은 기도와 빨라가 부탁드립니다
 4. 공소회장단 회의: 17일 오후 3시, 신교리 공소에서
- 지난주 봉헌금: 415,815원 교무금: 173,000원

(덕진)

신부(3)2182 수임 신부 **김동희**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수녀(72)6259 사도 회장 **양상현**

전화

1. 사도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교육관), 전 위원·단체대표·구역장·공소회장님 참석 바람
 2. 율례회: 반석회·청년연합회
 3. 진목회 임원개선: 회장-김낙원, 부회장-소병을, 총무-박용철, 감사-이성우·박종철
 ○교리교사 임원개선: 회장-박석규, 부회장-이미경, 총무-한동일
 ○중·고학생회 임원개선: 회장-김철, 부회장-현영애, 총무-엄경준·오승주
 4. 금요일 어머니미사 시간변경: 9시30분으로 앞당김 10시-성가연습
 5. 새 푸르실리스타 탄생: 축하합니다
 박가타리나·진혜레나·이루시아
 6. 일치주간: 18~25일 교회 내의 일치를 위해 노력하고 기도합니다
 7. 금주 본당청소(21일): 반석회·까리마스 자모회
- 지난주 봉헌금: 531,830원 교무금: 30,500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김성원**

1. 초 봉헌: 제대초·가정용 초는 사무실에 접수하세요
2. 주일헌금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합니다
3. 애령회: 18일 오전 10시
4. 중·고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미사와 금요일 저녁 7시 전미사에 빠짐없이 나와 참여합니다
5. 수녀원 헌금: 김안토니아·신옥근·이레지나·익명(각 1만원), 박금례(5천원), 누계 7,431,800원
6. 전화번호와 주소변경시 사무실에 연락 바람
7. 금주전례: 해설-최정순, 독서-①김성원 ②정동민

차주전례: 해설-황단금, 독서-①이갑진 ②정운주
 지난주 봉헌금: 105,440원 교무금: 506,190원

(서학동)

신부 ②8307

수녀 ②2276

주임 신부 **김별환**
 사도 회장 **김낙균**

1. 할머니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예비자교리: 오늘부터 실시, 수녀님께 신청 바람
 3. 남성 푸르실로 교육: 17일~20일까지 참가자-신영창·박종순·김상곤·소을용·오윤길 (많은 기도 바람)
 4. 84년도 교무금 신입 속히 신청 바랍니다
 5. 차주전례: 독서-①김배근 ②김상곤
- 지난주 봉헌금: 312,715원 교무금: 159,000원

(숲정이)

전화 ③7366 수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②9567 사도 회장 **김수금**

1. 성모회 율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불우 이웃 돕기 성금: 수입-340,000원 지출-동해월 100,000원(가난한 이 10명)
 3. 구역장 모임: 17일 19:30 ※교무금 신입 못하신 분 1월말까지 신입 바람
 4. 금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김남곤·선종현 기도-이은자
- 차주전례: 해설-이귀례, 독서-김경주·이동현 기도-김정분·장삼
- 지난주 봉헌금: 207,860원 교무금: 460,400원

(전동)

신부 ①6208 수임 신부 **박병업**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김범오**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김범오**

전화

1. 사도회 총회: 공식미사 후(사제관)
 2. 꼬미씨음: 오늘 오후 2시
 3. 은인미사: 16일 저녁 7시미사-이춘화
 4. 글라라 형제회: 29일 오후 1시30분
 5.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박종주, 독서-①이주영 ②최병례
 공식미사: 해설-이영희, 독서-①신일균 ②유기동
 저녁미사: 해설-교육회, 독서-①최충만 ②김희진
- 지난주 봉헌금: 673,990원 교무금: 506,0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수녀 ②4804 사도 회장 **황희상**

1. 성모회 총회: 13일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2. 19차 남성 푸르실로: 17일 최시몬씨가 참석하는데 열심히 기도해 주시다
 3. 주일학교 어린이: 평일미사에 열심히 참석하도록 부모님의 협조를 바랍니다
 4. 사도회 임사회: 오는 22일에 있음을 예고해드립니다
 5. 84년도 교무금 신입: 금월말까지 하시지 않은분은 사도회에 열심하는 것으로 간조합니다
 6. 2월부터 유치원 수녀님과 전교회 수녀님 한분이 더 오시게 됩니다
- 지난주 봉헌금: 283,880원
 성모기사회 봉헌금: 115,300원
 발구유 봉헌금: 7,200원 교무금: 277,000원

나환자 돕는 가입서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장 귀하

성 명		영세명		본 당 (직장)		팀명칭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직 장				전 화	자택			
					직장			
종 교				비 고				
회 비	매월 매년			원정 원정	입회일			

나환자 돕는 가입서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장 귀하

성 명		영세명		본 당 (직장)		팀명칭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직 장				전 화	자택			
					직장			
종 교				비 고				
회 비	매월 매년			원정 원정	입회일			

나환자 돕는 가입서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장 귀하

성 명		영세명		본 당 (직장)		팀명칭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통 반							
직 장				전 화	자택			
					직장			
종 교				비 고				
회 비	매월 매년			원정 원정	입회일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부모 형제에게 버림받고 인간의 삶의 가장 기본조건인 미래에의 희망과 사랑, 명예와 소유마저 잃고 병의 고통에 신음하며 외로이 통곡하는 나환자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비록 인간에게는 버림받고 있지만,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상대로 만드신 존귀한 생명이며, 하느님께서서는 우리보다도 이들을 더 사랑하고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희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에서는 이들의 힘이 되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매년 구라주일에 한번씩 헌금을 내어 그들을 돕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천주교 신자 나환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잃었던 자유와 새생명을 찾아 누리려고 전국의 37개 마을과 3개 불구자 보호시설에 6,000여명이 모여 주님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내일의 무한한 꿈을 간직하고 사는 축복받은 우리들은 하느님께 감사하며, 이들을 위하여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마태오 22:39, 마르코 12:31)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당신은 무엇이든 저들과 나누고 싶었던 충동이 없으신지요?

환자진료 의약품, 불구자 보조기구 및 치료비 등 기본적인것 뿐만 아니라 생활정착, 작은 기도의 집(성당), 교리실, 진료소, 수녀원 신축 등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저희 연합회가 지원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불구환자 및 양성환자 보호(치료포함): 성라자로마을(안양)·성심인애병원(산청)·국립나병원(소록도)
- 2) 이동진료: 성라자로 마을(안양)·가톨릭피부과 병원(칠곡)·파티마병원(대구)·성모병원(이리)·다미안의원(영주)·한독의원(하동)
- 3) 단기입원: 가톨릭피부과 병원(대구)·성모병원(이리)·성심의원(성주)·다미안의원(영주)·한독의원(하동)
- 4) 나환자 자녀 보호: 다미안 사회복지회(안양)·프란치스코의 집(부산)·요한, 23세마을(진주)
- 5) 치료 및 연구: 성모병원 만성병연구소(서울)
- 6) 정착마을: 전국 37개 음성나환자 자립 정착마을.

이처럼 많은 일에 비해 연합회는 너무나 힘이 부족합니다. 우리 연합회는 82년부터 구라주일 헌금만으로 이 벅찬 일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며 교회의 이름으로 구라사업을 하려는 우리에게서는 교형자매 여러분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고,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야말로 백만의 원군을 얻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중에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마태오 25:40) 연합회의 나환자 돕기 회원이 되는 것은 바로 전국 6,000여명의 가톨릭 나환자를 돕는 것이 됩니다. 금액의 다과에 관계 없이 나환자와 사랑을 나누는 행렬에 참여하지 않으시렵니까? 뜻이 있으신 분은 개인이나 팀을 만들어 연합회에 가입신청서를 보내 주시면 회원카드와 우편 송금대체 계좌 용지를 보내드립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 가톨릭 나사업가 연합회

회 장 이 경 재 신 부

연 락 처 171. 안양우체국 사서함 4호,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오전리87
전화: 안양52-5655, 0540
우편대체구좌번호: 100347-31-7230519